

자 기 소 개 서

‘사용설명서를 만들자’

첫 직장에서 전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받은 업무가 문제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원들은 몰랐고, 이를 아는 것이 문제 해결 시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들과 상황 파악한 뒤 자산공사 측에 이를 알렸고 일을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간 사건들의 다시 재소송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업무 전반에 누락된 부분이 많아 메뉴얼화 시키는 것을 가장 중점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적용시킨 것을 자산 측과 공유하였고 자산 측에서 적극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도 위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이 도입되던 시점이라,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시되었다. 일련의 일을 겪으면서 어떤 것을 메뉴얼화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됨과 더불어 전자소송-사용할 때 미흡한 점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장점

1. 꾸준함

메뉴얼화 된 형식을 자산과 공유하며 꾸준히 보완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공사와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월별로 정리하여, 후에 공사 측 사후사건 관리 및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후에 전자소송 사건들도 매뉴얼로 정리함으로 사건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2. 어려움이 생긴다면, 여러 사람과 의견을 통해 해결해간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영역으로 접근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그 당시에 막 시도되었던 부분이라 같이 일하던 동료분들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이를 설명하고 의견교환을 통해 서로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교환해서 일하는 동안, 법원과 공공기관에서 업무효율을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곳이라고 정평이 난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단점

너무 신중한 성격 탓에 가끔은 혼자만 끙끙 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수록 자신 파악을 확실히 한 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해결해갑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자산사건 덕에 배운 것입니다.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전자소송, 파산 및 송무 등을 하면서 사건들을 어떻게 하면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고 디지털화 되는 소송 전반을 어떻게 의뢰인에게 선보일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전자소송에 대해 일을 하는 법원직원, 변호사사무실, 의뢰인 간 간극이 컸고, 또한 의뢰인들은 전자소송을 통한 소송 진행을 꺼려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불만과 이를 보완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보기쉽게 메뉴얼화 된 볼 수 있는 웹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1년 반 정도 걸쳐서 공부를 하였고 SBS아카데미에서 웹디자인 양성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또한, 관련 자격증에 도전 중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깨달은 것과 웹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얻은 것들로 확장시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